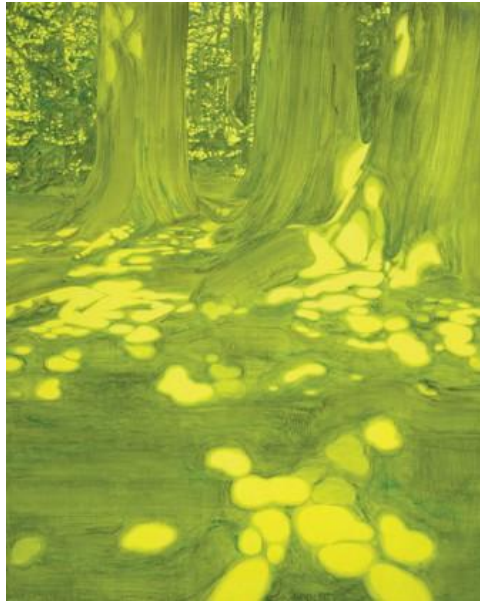




Duri Baek, 자리 49 (Jari 49), 2026, 캔버스에 아크릴(Acrylic on canvas), 227.3 x 181.8 cm | 자리 50 (Jari 50), 2026, 캔버스에 아크릴(Acrylic on canvas), 227.3 x 181.8 cm | Courtesy of the artist and CDA

2026 Kiaf SEOUL

CDA

Hyuncheol Moon, Director

회심

백두리는 나무에 비치고, 나무를 통과한 빛과 그림자로 삶과 죽음, 손상과 회복처럼 반대되는 것들의 공존을 이야기한다. 그 중심에는 인간의 삶이 있다. <자리>는 나무와 땅 위로 떨어지는 빛과 그림자가 조화를 이루는 시리즈다. 작가가 오랫동안 준비한 신작 '자리 49'와 '자리 50', 이 두 폭은 그동안의 작업 중 단일 작품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고, 함께 걸면 가로 폭이 무려 363.6센티미터에 이른다. 따로 그렸지만 나란히 걸리는 순간 나무 기둥과 바닥의 빛이 화면을 가로질러 은은히 이어지고, 관객은 숲을 '보는' 대신 숲 안에 '서게' 된다. 백두리의 미술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키아프에서 처음 공개되는 이 작품이

기관으로 갈지, 기업이나 한 개인의 선택을 받을지 우리도 무척 궁금하다.



Soyeong Kim | Frame, 2026 | 캔버스에 아크릴과 한지 (Acrylic and Hanji on canvas), 45.5 x 37.9 cm | Courtesy of the artist and CDA

사심

이 작가의 어둠은 애매하다. 끝까지 내려가지도 밝아지지도 않는 어중간한 자리에 머무는데, 그 애매함이 특유의 분위기를 만든다. 다들 중간만 하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가장 어렵다는 걸 아시죠? 김소영은 인간과 비인간의 언어에 집중한다. 제스처는 물론이고 침묵도 일종의 언어다.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그 침묵을 곧 여백으로 받아들인다. 캔버스 위에 한지를 얹고 아크릴로 그린 이 화면에서도, 어둠

옆에 한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손등에 걸린 빛은 칠해진 흰색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 않은 종이 그 자체 — 작가가 말하는 침묵이자 여백이다. 가장 어두운 것과 가장 순수한 것이 한 화면에서 맞닿는 그 대비가, 나는 계속 아름답다.

CARIN

Yoojin Yang, Director



Suji Kim | Traces of a Goner, 2026 | Oil on canvas (framed), 30.5 x 61 cm

회심

작가가 오랫동안 탐구해온 기억과 역사, 신화적 이미지가 유화라는 매체의 물질성과 만나 가장 깊이 응축된 작업으로, 김수지 작가의 회화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김수지는 화면 위에 이미지를 단순히 재현하는 대신,

물감을 쌓고 지우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시간이 축적되고 변화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여러 겹의 레이어는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을 닮아 있으며, 이전의 흔적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새로운 이미지와 관계를 맺는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 사용된 나무 액자는 단순히 회화를 둘러싸는 장식적 틀이 아니라, 작품 내부의 의미를 확장하는 또 하나의 회화적 겹으로 작동한다. 액자는 마치 문처럼 열리고 닫히며, 화면 안에 존재하는 이미지와 그 너머의 공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는 김수지가 탐구해온 '가림'과 '드러냄'의 개념을 물리적인 형태로 확장한다. 처음 마주했을 때의 시각적 매력뿐 아니라, 오래 바라볼수록 새로운 이미지와 이야기가 발견된다.



Dopple Kim | Untitled(Superimpose), 2025 |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90.9 x 78.4 cm

사심

김도플은 디지털 이미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바라보고 기억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회화적으로 탐구한다. 작가는 온라인에서 수집한 이미지와 개인적인 기억의 조각들을 편집하고 재구성하는데, 특히 1980~1990년대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차용해 서로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장면들을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작업 방식이 흥미롭다. 한 장면과 다음 장면 사이의 작은 차이, 즉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간극을 통해 사라지는 시간과 남겨진 기억의 흔적을 바라보게 한다. 빠르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디지털 이미지 시대에 김도플의 작업은 오히려 느린 관찰과 사유를 요구한다. 익숙한 이미지가

낮선 방식으로 변형되는 순간, 관람자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미지와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차용을 넘어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질문하는 회화적 실험이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 끌리는 이유는 완벽하게 설명되는 이미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여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 안에 존재하는 미세한 차이와 긴장은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점이 김도플 작업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적 가치나 즉각적 반응, 판매 여부를 떠나 개인적으로 가장 오래 곁에 두고 싶은, 갤러리 공간 안에서 오래 바라보고 싶은, 나의 사심이 담겼다.

EM

Nayoung Lee, Director



Heesoo Kim | 품은 사람 IV The One Who Holds IV, 2026 | Acrylic on canvas, 90.9 x 72.7 cm

회심

김희수의 인물은 굵은 윤곽선과 두꺼운 물감 층이 만들어내는 조각처럼 단단한 형상이 돋보인다. '품은 사람 IV'에는 두 인물이 서로에게 기대어 버티는 자세 위로, 손이 닿지 않는 자리에 푸른 원 하나가 떠 있다. 이 화면은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끝내 품게 되는 바람과 희망을 설명하지 않고도 보여준다. 작가의 최근 관심이 가장 밀도 높게 응축된 작품이라 생각해 회심작으로 골랐다.



Heesoo Kim | 균형 Balance, 2026 | Acrylic on wooden panel, artist-made wooden frame, 21.2 x 14.5 cm

사심

작가가 직접 제작한 독특한 마름모꼴의 나무 프레임 안에 담긴 작품으로, 화면 속 인물이 지닌 정제된 고요함과 구조적 안정감이 매력적이다. 머리 위에 무언가를 이고 선 인물과 이를 감싸는 기울어진 프레임의 조화를 보면, 균형이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매 순간 조율해가는 일처럼 느껴진다. 지금의 내 삶과도 맞닿아 있어 사심으로 골랐다.

THOE

Hyunmin Kim, Founder



함성주 | Demonflyingfox, 2026 | Oil on canvas, 73 x 61 cm

회심

함성주는 1990년대 비디오 게임, 뮤직비디오 등 카메라 알고리즘에 의해 왜곡된 스크린 이미지의 궤적을 관찰하고 회화적 움직임으로 포착한다. 이 작품은 함성주의 조각적인 기법과 검은색 안료의 밀도 높은 표현으로 완성됐다. 재킷의 질감과 굴곡이 살아

움직이고, 작가 특유의 무아레 패턴이 이미지의 볼륨과 실제적 감각을 좌우한다. 빛이 산란하는 흑청색 파장의 무늬로 직조된 화면은 매혹적이다. 결국 함성주의 회화는 보는 것에 대한 진실한 문제의식을 동인으로 동시대 이미지와 오늘날 회화를 접합하고 완고히 천착하며 나아가는 공감각적 여정이다.



함성주 | Mapplethorpe, 2026 | Oil on canvas, 73 x 61 cm

사심

함성주가 추구하는 "실제보다 더 입체적인 상태". 검은 포도의 낱알이 보석같이 모양을 이루고, 원형의 입체감은 빛과 그림자를 오가며 세련된 자태를 감추지 않는다. 그의 모노크롬은 가까이서 볼 때와 멀리서 볼 때 모두 다르다. 묘한 거리감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미지는 새로운 시간성을 부여받는다.

THE MOOLAH MULTI-ART SPACE

YANG, Chien-Yu, Founder



HSIAO, Chu-Fang | Little Starfruit, 2019 | Acrylic on canvas, 130 x 194 x 4.5 cm

회심

샤오주팡은 회화를 통해 동시대의 삶 속에서 생겨나는 감정적 반응과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표정들을 포착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내 작품을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느슨하게 풀어진 선, 미묘하게 어긋난 표정, 몸에서 느껴지는 작은 불협화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천진해 보이면서도 그 아래 불안의 기류가 흐르는 색채를 통해 익숙했던 순간은 조용히 제자리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그 균열은 무질서가 아니다. 오히려 지각이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틈에 가깝다.



HUANG, Chien-Hua | Transcoder - Welcome to the Carousel Radio Station, 2016 | Digitally manipulated photograph, archival pigment print on Hahnemühle, 110 x 208 cm (Image), 112 x 210 x 4 cm (Frame) | Photo Rag Metallic

회심

황젠화는 디지털 이미지와 상징적인 장면을 활용해 자연과 공동체, 시선의 작동 방식 사이의 관계를 구축한다. 이 작품에서 황젠화는 부영이와 공작을 통해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 '바라보기'의 방식을 구현한다. 여러 마리의 부영이가 계속해서 정면을 응시하면서, 처음에는 자신이 단순히 작품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관객은 점차 자신 역시 누군가의 시선 아래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된다. 반면 공작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인 존재다. 깃털과 자세를 통해 시선을 사로잡으며, 적극적으로 '보여지기'를 요구하는 존재처럼 등장한다. 이 작품이 다루는 것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만이 아니다. 우리의 주의가 어떻게 사로잡히고 배치되는지, 바라보는 행위 속에서 이미지가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의 위치를 다시 설정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회심으로, 사심으로, 어쩌면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것은 더 많이 보는 방법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과 조금 더 오래 머무는 방법인지도 모른다.

DOHING ART

Seunghye Chung, Founder



김서연 | Hold Your Breath 숨을 참아봐, 2025 | Oil on canvas, 130.3 x 89.4 cm

회심

작가의 <루시> 연작을 대표하는 작품. 특유의 비비드한 색채, 극도로 섬세한 유화 기법이 집약되어 있다. 1950년대 미국 TV 시트콤 <I Love Lucy>의 주인공 루시를 모티브로 한 오너먼트를 그렸는데, 화면 속 인물은 장식품과 실제 인간 사이에 놓인 모호한 존재로 제시된다. 광택 있는 표면과 플레시가 남긴 빛의 얼룩은 디지털 상품 사진의 인공적이고 낯선 감각을 불러일으키며, 대상과 이미지, 현실과 재현의 경계를 질문한다. 강렬한 색채와 팝적인 이미지로 관객 시선을 사로잡는 동시에 작가의 작업 세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김서연 | Where I am 내가 있는 곳, 2026 | Oil on canvas, 72.7 x 60.6 cm

사심

갤러리스트로서 개인적인 소장 욕구를 가장 강하게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마추어적인 판매 사진의 우연한 시선과 즉흥적인 구도를 차용해, 익숙한 생활 공간과 낯선 피겨린이 공존하는 독특한 장면을 만들어낸다. 화면을 가득 채우도록 확대된 피겨린의 일부는 친숙하면서도 어딘가 비현실적인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며, 포슬린 오너먼트의 매끄럽고 단단한 질감과 섬세한 장식적 요소는 유화로 정교하게 구현되어 실물에서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일상적인 이미지 속에서 낯선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작가의 시선 또한 인상 깊다.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곁에 두고 감상하고 싶다.

DONNA ART

Donna Miranda, Founder



Indra DODI | Dinner Series 64, 2026 | Medium - acrylic on canvas, 70 x 90 cm

회심

인드라 도디의 예술 세계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가는 일상적인 저녁 식탁이라는 친숙한 풍경을 통해 가족과 기억,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이루는 관계에 대해 돌아본다. 작품 속 인물들은 익숙하게 느껴지면서도 특정한 누군가로 규정되지 않는다. 덕분에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관객들은 이 장면 안에서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 빠르게 흘러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이 작품은 잠시 속도를 늦추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조용히 일깨운다. 특정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보다는 따뜻함과 고요한 성찰, 그리고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감각으로 채워진 정서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나는 이 작품이

가족의 식탁을 둘러싸고 나누었던 사랑과 위안, 기억을 담아내기에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관객으로 하여금 마음속 가장 가까이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오래도록 되새기게 한다.



FU Hau Shiuun | Fellowship, 2026 | Medium - Oil on canvas, 65 x 50 cm

사심

갤러리스트로서 개인적으로 아끼는 작품이다. 푸하오슈안만의 작업 세계에 늘 존재해온 고요하고 깊은 정서가 잘 보이기 때문이다. 뽀뽀한 초목에 둘러싸인 흰색 소파의 이미지는 아늑하면서도 탁 트인 듯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대화 나누고, 함께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장소처럼 느껴진다.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나'에서 '우리 We'로 나아가도록 건네는 부드러운 초대다. 서로의 차이로 인해 사람들이 쉽게 단절되는 세상에서, 이 그림은 곁을 함께하는 것과 서로를 지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운다. 이 작품의 가치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느껴지는 소속감과 위안에도 있다. 관객들이 이 작품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갤러리 공간을 떠난 뒤에도 그 감정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란다.

SPACE WILLING N DEALING

Inseon Kim, Founder



박노완 | 노래방 풍경 Karaoke Scene, 2023 | 캔버스에 수채, 170 x 138cm

회심

박노완의 작품에서는 정교한 묘사나 화려한 기교는 볼 수 없다. 모호하게 이어진 형태와 화면 위를 자유롭게 오가는 붓질 자극들이 난무한다. 노래방 테이블 위 낭만으로 가득해 보이는 해골 인형이 사이키 조명과 어우러지며 서투게 유행가를 부르던 그때의 감정이 살아난다. 그의 그림에는 긴장된 삶 속에서 흘러보냈던 이미지를 소환, 낯선 친밀감으로 보는 사람을 무장 해제시키는 매력이 있다.



김혜원 | 합정지구 앞 따릉이 A Sharing bicycle built outside the building, 2025 | 캔버스에 아크릴, 112.1 x 162.2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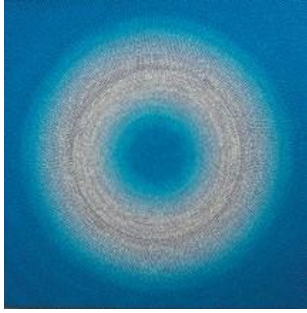
사심

고갱이 수많은 색을 한 화면에 담으면서도 저마다의 색이 어우러진 풍경을 만들어냈듯, 김혜원의 그림은 늘 풍부한 색채로 가득하다. 화면 속 어디를 들여다봐도 밀도 높게 색이 촘촘하다. 작가는 이번 신작에서 새롭게 구사한 드로핑 기법으로 다양한 색을 병치하며 또 다른 마술을 부렸다. 색채에 매혹되곤 하는 나는 이 작업의 표면에서 만들어지는 색의 향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GALLERY GRAPPE

Neongwon Yu, Director



GOMA | Hikari, 2026 | Acrylic on Illustration board, 91 x 91 cm

회심

고마의 'Hikari'는 많은 이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빛의 화면이다. 이번 KIAF 서울을 통해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이 작품은 끝없이 이어지는 작은 점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빛을 이룬다. 멀리서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푸른 광채로, 가까이에서는 호흡을 고르며 쌓아 올린 시간의 입자로

다가온다.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반복과 집중이 만들어낸 에너지의 밀도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처음 마주한 순간의 인상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사실

장현호의 'Magnolia 202603211547'는 내 안에 오래 머문, 아주 사적인 작품이다. 짧은 계절을 건디며 피어나는 목련과 오랜 세월을 품은 원목이 한 화면에서 함께 숨 쉬면서, 서로 다른 시간들이 한 번에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준다. 실제 나무가 화면 안으로 들어와 회화와 오브제의 경계를 흐트러뜨리는 순간이 특히 인상적인데, 그 틈 사이로 빛과 그림자, 기억과 공백이 천천히 스며든다.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더 많은 층위를 드러내는 작품을 좋아하는 나를, 이 작업은 나의 시간과 감정을 가장 조용하게 건드린다.

장현호 | Magnolia 202603211547, 2026 | 원목, 한지에 먹과 호분, 102.5 x 80 cm



GALLERY HESED

Eden Sul, Founder



이승주 | 불잡히지 않는(#22), 2026 | 캔버스에 유화, 140 x 105 cm

회심

시끄럽고 자극적이어야만 선택받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승주의 작품은 공간에 스며 있는 작가만의 감수성과 시간을 매우 잔잔하고 섬세하게 전달한다. 일상의 풍경을 담고 있는 듯하지만 절제된 색감과 차분한 화면은 단순한 일상적 풍경의 재현을 넘어선다. 쉽게 흘러가고 붙잡히지 않는 시간과 기억, 감정의 흔적을 붙들어두려는 이승주의 시도를 담고 있다. 익숙한 공간은 작가의 사유를 거쳐 하나의 내면 풍경으로 확장되고, 관람자는 그 안에서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된다.



최지현 | 바람의 숲, 2026 | 장지 위에 안료, 162.2 x 112.2 cm

사실

최지현의 작품은 장지 위에 분채와 석채를 한 겹씩 쌓아 올리는 동양화의 물성을 통해 자연이 품은 시간을 시각화한다. 밑그림 없이 직관적으로 화면을 구축해나가는 작업 방식은 예측보다는 작가 고유의 감각과 호흡을 따르며, 화면 위에 축적된 안료의 층들은 작가가 만들어내는 생명과 시간의 흔적을 담아낸다. 숲은 풍경과 자연의 존재를 사유하게 하는 공간으로 확장되어 그림 앞에 선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HORI ART SPACE

Nari Kim, Founder



김남표 | Memento mori#1, 2026 | Pastel on canvas, 91 x 116.8 cm

회심

가로로 넓게 펼쳐진 화면 위에 짙은 레드와 자주, 화이트, 아이보리 빛 작약이 화병 가득 빼곡하게 들어찬 이 작업은, 줄기와 물빛으로 질게 가라앉은 투명한 유리 화병이 베이지 배경과 대비를 이룬다. 만개한 꽃과 빛바랜 잎이 한 다발 안에 공존하며, 파스텔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이 화면의 밀도를 응축시킨다. 김남표 작가의 <메멘토 모리> 연작 중 가장 풍성하고 색채 대비가 강렬해, KIAF의 호리아트스페이스 대표작으로 판단했다.



김남표 | Memento mori#11, 2026 | Pastel on canvas, 116.8 x 91 cm

사실

짙은 어둠이 화면 전체를 감싸고, 이미 만개해 빛이 바래기 시작한 아이보리 빛 작약들이 서로에게 스러지듯 기대어 있다. 이 작업은 화려함보다는 침묵에 가까운 정서를 품고 있다고 느낀다. 화병 아래 떨어져 있는 꽃잎 두 장이 낙화의 순간을 이미 지나왔음을 조용히 말해준다. 어둠 속 정지된 시간 앞에서 나는 시선을 멈췄다. ㉞